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▪담당자 : 지역개발연구부 장성화 연구위원
(063-280-7152, 010-4924-7983)

보도시점 : 2019년 9월 6일(금)부터

전북연구원, 전라북도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 제안

도 차원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통합할 전문성 갖춘 전담기구 구성
사업 총괄하는 효율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‘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’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-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종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주고, 시·군이나 LH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광역단위의 총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6일 ‘전라북도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’라는 이슈브리핑(206호)을 통해 광역차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서민과 시·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.

-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, 주택개보수 지원, 주거급여,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.
- 문제는 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,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요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.
- 전북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-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,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,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주민 가까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런 맥락에서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·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.
- 서울시와 대구광역시, 수원시와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 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.
-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, 제주도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,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.

- 그러나,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물론 광역차원의 주거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.
-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“주거복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”며 “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라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·사업을 총괄·지원하면서, 점진적으로 각 시·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, 사업성과를 고려해 관련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-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